

#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淨土

## 성남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제11주년 기념법회 봉행

“노산혜원법사(盧山慧源法師)의 백련결사(白蓮結社) 전통을 계승해 가져 가는 법등(法燈)을 밝히며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청계산 정토사에서 만일염불결사도량을 개장합니다. 대중불교의 가치를 내세웠던 원효성사의 뜻을 받들어 일년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바르게 사는 염불행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염불수행을 통한 불교 대중화의 원력 하에 2000년 성남 청계산 정토사(주지 보광 스님)에서 출범한 만일염불결사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10년의 결사운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 결사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서 스님을 비롯해 만일염불회 회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국회의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해 결사 의미를 되새겼다.

그동안 염불수행은 삼국시대부터 원효(617~686) 대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장한 이래 간화선에 비해 그 수행방법의 편의성과 대중성이란 장점으로 가장 친숙한 수행법의 하나로 자리해왔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염불수행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사부대중이 ‘염불결사’라는 조직을 결성해 20여 년 동안 정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라 경덕왕 때 발정 스님이 고성 원각

사(현 건봉사)에서 사부대중 1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결성한 ‘만일염불회’가 최초의 결사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그 명맥이 이어졌다.

성남 정토사가 조직한 만일염불결사회는 이런 전통을 이어 염불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불범홍포를 도모하는 신앙결사체로 1600여 회원들이 참여해 생활 속 수행문화 진작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는 불교바르게 만들기운동의 기치 하에 매일 첫째 일요일에 법회를 봉행하고 세 번째 토요일에 철야정진을 봉행해왔다. 또 각각 10명을 한 팀으로하루 열 번 ‘나무아미타불’ 염송, 하루 20분 염불선 실참 등을 진행하고 불교호스피스 활동과 불교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만일염불결사회 만의 독특한 기부문화인 염불전(念佛錢) 기부와 활용은 신앙결사체를 넘어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과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염불전 기부는 매일 염불수행에 앞서 100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만일염불결사회는 염불전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정도교학 출판사업 및 정도학 연구 및 학술 지원, 호스피스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 내역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원서 스님은 만



일일염불결사회의 신앙결사를 격려하고 수행행자가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가 되기를 발원했다.

원서 스님은 “찾으려고 하면 찾아도 없다”며 “염불을 통해 일념삼매에 들고 생각을 다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그 일념조차 버리는 순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미타불 염송 뿐만 아니라 그 공덕을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로 더욱더 활기차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자선 염불만일결사회 고문은 이날 결사문을 통해 “자금의 불교현실은 위신이 날로 땅에 떨어지며 중단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수행풍토가 날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 부족한 신심에도 금강과 같은 신심과 불퇴의 원력으로 불법이 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염불신앙은 대중불교의 집약체

## 관문사서 제7회 천태학술대회, 염불신앙 집중 조명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불교 동호회는 어디일까. 바로 나무아미타불(http://cafe.daum.net/ambt)이다. 회원수가 54000 여명에 이르는 불교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또한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는 간화선 수행을 위주로 한국불교의 내면에는 염불 수행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은 한국 불자들이 의우는 가장 대표적인 불보살의 명호로 일반인들에게 까지 친숙하다.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저자거리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지심으로 부르며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한 이후 염불은 불교수행법 중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불보살의 원력에 기대는 ‘염불’은 타력신앙으로 인식돼 한국불교에서 자력(自力)으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간화선’에 비해 낮은 수행법으로 취급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염불신앙을 현대 종교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6월 4일 서울 천태종 관문사서 ‘염불신앙의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2011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열고 염불신앙과 현대적 수행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염불을 통한 타력 신앙이야말로 대승 불교의 대중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신앙 형태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염불신앙은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불교의 대중성이 잘 드러난 대중불교 운동의 중심신앙”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표 교수는 “부처님의 설법 정신은 누구나 쉽게 불법의 진수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데 있어 부처님도 상류층보다는 일반 대중을 구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바라문의 성전 언어인 베다어를 배제하고 당시의 민중언어였던 마가디(Magadhi)로 설법하였다”며

“이러한 교육적 신이 후에 불교가 염불신앙 등의 대중종교로 발전하게 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의 신앙형태에서 기도와 염불 중심성이 이뤄지는 이유를 “교리공부와 참선수행이 접근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행의 종교적 효능도 신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용표 교수는 그 원인으로 “삶의 고통에서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욕구는 무엇보다도 부귀와 무병장수, 그리고 죽은 후의 구원을 바라는 희망이 있으며, 범부중생이 일시에 돈오(頓悟)하여 불하기는 그 염정이 너무 많고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생 위한 신앙이 종교의 본질이다”

김용표 교수는 이러한 대중의 근기에 맞춘 염불신앙에 대한 비판을 종교학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신앙에서 자력과 타력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염불 수행도

불보살의 가피력에 기대고자 하는 점은 타력적이지만 그 수행이 깊어지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보살의 불성을 깨닫게 되는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염불신앙이 근기가 낮은 범부를 위한 방편이란 비판에 대해 “종교의 핵심은 일반대중이 진리를 느끼고 체험하는데 있다”며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실존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더 사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를 자력과 타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화하려는 작업은 지나친 과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불교는 깨달음에는 수많은 방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염불신앙은 이 길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열려진 또 하나의 방편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는 자력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종교라고 하거나, 또는 초기불교와 선종은 자력문이고 정도종

은 타력문이라고 규정짓는 일은 그 종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소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표 교수는 끝으로 불교는 본래 자력신앙을 중심으로 출발한 종교였으나 타력에 의한 구제의 길도 열어 보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타력신앙이 발달하게 된 참 뜻을 되짚어 살려야 하는 것이 불자들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현 동국대 교수도 ‘염불신앙의 연원과 전개’ 발제에서 “신라의 원효는 천존만락을 다니면서 대중을 교화했고 이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타의 호를 알고 南無를 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백련결사로 고려시대 계승돼 고려사회의 재가신도들 사이에도 염불신앙은 성행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신앙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 “매일 염불 통해 사회변화를 이끈다”

## 만일염불결사회 회주·성남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



오랜 시간 동안 불자들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는 염불을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처럼 염불은 선

(禪)과 더불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실천해 온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까지 친숙하다.

〈아미타경〉에는 “하루나 이를 사흘 닷새 열세 이렛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 이름을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반주삼매경)에도 “칠일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꿈속이라도 친견하게된다”는 구절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만일염불결사가 유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타락한 불교를 살리기 위한 백련결사가 일어났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어렵자 사명대사가 동갑계(同甲契)를 조직, 사찰을 복원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구한말에는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에서 염불만 일화가 융성하게 일어나 지금도 한국 정토신앙의 성지로 손꼽힌다. 해방 후 간화선 중심의 선불교가 융성하면서 주춤했던 염불만일회는 1985년

대구에서 수산 스님이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보광 스님이 정토신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만일회를 조직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청계산 정토사는 한국 정토신앙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광 스님은 “한국의 염불결사는 신라시대의 귀족화된 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사찰의 경제적 후원 역할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불교가 탄압받아 교단이 위축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종교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일염불결사회 결성과 관련해 “21세기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신앙공동체의 결성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던 일”이라며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염불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염불행자가 되도록 서로를 타마하지”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 김윤수 전 부장판사가 펴낸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역주서!

## 청량의 소에 의한 대방광불화엄경(I~VII)

알기 쉬운 번역과 상세한 역주로 독자들을 화엄의 정수로 이끌어주는 책!

80권본 화엄경을 한글세대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함은 물론, 화엄경 주석의 백미로 꼽히는 청량정판의 「소초」를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말 번역과 실차난다 한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치가 깊고 넓은 물론 분량마저 방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화엄경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김윤수 역주 | 전7권 | 총 6,000쪽 | 정가 300,000원 | 한산암

